

회화양식이 의상의 조형성에 미친 영향(I)

중앙대학교 가정대학 의류학과
주명희 · 정홍숙

目	次
I. 서 론	4) 뒤피(Raoul Dufy, 1877~1953)
II. 사회·문화·예술적 배경	IV. Fauvism 영향기의 의상 연구
1. 사회·문화적 배경	1. Empire Tunic Style
2. 예술적 배경	2. Hobble Style
III. Fauvism의 회화적인 특성 고찰	3. Minaret Style
1. Fauvism의 탄생	4. Harem Pantaloon Style
2. Fauvism 화가의 작품 고찰	V. Fauvism이 의상의 조형성에 미친 영향성 고찰
1) 마티스(Henri Matisse, 1889~1954)	1. 형태(silhouette)
2) 블라맹크(Maurice de Vlaminck, 1876~1958)	2. 선(line)
3) 드랭(Andre Derain, 1880~1954)	3. 색채(color)
	IV. 결 론

I. 서 론

인간의 내면적 욕구와 미적 감각의 표현으로서의 의상은 이미 미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인체위에 표출되는 예술의 한 장르로서 의상의 여러 조형 요소로 구성되어 예술 원리와 형식미의 원리에 의해 창출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의상은 그 시대의 대표적인 예술양식이나 예술사조와는 불가분의 관계를 맺게 되고, 구체적인 특성에 있어서도 그 맥(脈)을 같이 하는 바가 크며, 여러 예술 분야 및 의상에 나타난 예술양식의 특성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그들의 상호 상관관계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회화양식 중 현대 회화의 문을

열었던 Fauvism이 의상의 조형성에 미친 영향에 관하여 그 초점을 두어 Fauvism의 특성이 의상에 어떻게 흡수되었으며 복식이라는 외적인 표현 수단을 통하여 어떻게 구현되었는가를 규명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을 두어 고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Fauvism의 회화양식을 중심으로 1905년에서 1908년에 걸쳐서 발표된 작가의 작품만을 선별해 분석 검토하였다. 1908년 이후 Fauvism 시대는 사실상 종말을 고하게 되며¹⁾ Fauvism 화가들도 Fauvism의 미술적인 특성을 배제한 채 각각 다른 회화양식의 길로 나아가게 되기 때문이다.²⁾

Fauvism 영향기의 의상은 1906년에서 1914년 제1차세계대전 이전까지로 한정했는데 이시기는 현대 복식의 도래(到來)와 함께 Fauvism의 양상과

1) 현대세계미술대전집, 마티스, (서울: 금성출판사, 1981), p. 280.

2) 월드아트콜렉션, 근대·현대 I, (서울: 삼성출판사, 1990), p. 106.

특성이 가장 많이 표현되었기 때문이다.³⁾

연구 방법은 사회·문화적 배경과 Fauvism의 탄생에 대해서는 문헌과 사적(史的)인 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고찰하였으며, 당시의 예술분야와의 관계에 의한 예술적 배경에 대해서는 문헌, 작품집, 슬라이드, 사진 자료, 패션 플레이트, 일러스트레이션 등을 이용하여 고찰함으로써 주로 Fauvism이 의상의 조형요소 중 형태(silhouette)·선(line)·색채(color)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를 분석 고찰하였다.

II. 사회·문화·예술적 배경

1. 사회·문화적 배경

현대란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1914년보다 50년 전 또는 그 이전인 제국주의 시대부터라고 할 수 있다.⁴⁾ 서양의 문화가 세계에 가장 큰 충격을 준 것은 바로 이 시대였으며 기술·공업·과학 등의 물질문명에 있어서도 일찍이 유례없는 장족의 발전이 이루어졌다.

보·불전쟁(1870~1871)이 끝난 후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유럽은 표면적으로는 큰 전쟁이 없었던 평화의 시기이며 이른바 'La Belle Epogue'로 일컬어지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드레퓌스(Drefus)사건(1894~1899) 이후의 1900년부터 1914년 이전까지를 일컫는 것으로 이 시기는 물질적인 풍요와 평화스러움이 가득찬 시대였다. '좋은 시대'라는 의미의 Belle Epogue는 르네상스 이래로 인간적이며 정서가 풍부한 한 시대의 마지막인 동시에 찬란한 과학 시대로의 시작이었다.⁵⁾

20세기 초에 일어난 혁명적 미술 운동인 Fauvism은 한 시대가 맞아들인 위기를 대표하는 동시에 장기간에 걸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즉 사회적 측면에서 볼 때 1905년에 비롯되어 그 후의 시대를 특징짓는 사회적 동요(動搖)와 불안의 표명(表明)으로서 근본적인 변혁에 대한 요청의 결과였으며,

문화적 측면에서는 구(舊)질서로부터 독립하여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새로운 질서를 구축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강조하였다. 과학의 발전은 정신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현실이란 감각이나 이성에 따라 지시되는 것이 아니고 상상력이 발견하는 것이라는 의미로서 Fauvism은 환상이 지니는 권리라는 명목하에 과학에 반발하는 자세를 취한 예술운동이었다.⁶⁾

무정부주의자들의 음모, 극동의 일련의 전쟁, 유럽의 끊임없는 마찰과 위험 등은 결코 평안한 시대가 아니였음에도 불구하고 낙천주의적인 분위기는 만연되었으며 그 누구든 미래를 믿고 있었다. 또한 민중은 자신들의 강함과 존엄의 감각을 회복해 나갔다. 실제 인류의 희망은 압도적으로 기술과 과학에 집중되어 있었고 기술과 과학의 놀랄만한 발전은 나날이 생활의 템포를 빠르게 하였으며 생활을 질적으로 풍요롭게 변화시켰다.⁷⁾

2. 예술적 배경

20세기에 들어와 예술에 있어서의 그 표현의 현상은 미술·음악·무용·모우드 등 예술의 각 장르마다 아주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을 띠고 발전해 왔다.

그러나 이와같이 복잡하고 다양한 표현 현상을 주의깊게 관찰하면 두가지 근저적(根底的) 흐름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현대의 대표적인 미술사학자인 제들마이어(Sedlmayr, H)가 그의 저서 「중심의 상실」(Verlust der Mitte, 1948) 및 「근대예술의 혁명」(Die Revolution der Modernen Kunst, 1955)에서 '현대 예술 각각의 장르에 있어서 순수성으로의 지향'을 지적한 자율성에의 지향의 흐름인 것이다. 즉 현대 미술의 각 장르에서 순수성을 추구한 결과 추상주의 미술에 도달하게 되었다.⁸⁾

회화에 있어서 후기 인상주의자인 세잔느(Paul Cezanne, 1839~1906) 이후의 20세기 회화는 색채

3) 정홍숙, 근대복식문화사, (서울: 교문사, 1989). p. 93.

4) 타임라이프북스 편집부, 라이프 인간 세계사, (서울: 한국일보 타임 라이프, 20세기, 1985), p. 12.

5) 南静, パリノードの200年, (東京: 文化出版局, 1975) p. 89.

6) リオネロヴェントウーリ, 美術批評史, 茂譯(東京: みすず書房, 1971), pp. 288~289.

7) Caston LDiehl, Les Fauves, 渡邊康子譯, (東京: 美術出版社, 1979), pp. 15~17.

8) 板倉壽郎, "現代的表現의 低流", 주간섬유, 1986년 4월 16일자, p. 12.

의 해방과 새로운 조형의 추구를 지향하며 전통에 대한 파괴와 변형을 나타내었다.⁹⁾

조각에 있어서도 대상의 재현을 부정하여 순수하게 불륨(量感)의 구성을 추구하였다.¹⁰⁾

현대 건축도 회화적인 것과 조각적인 것을 추구하여 순수하게 구축적인 표현을 추구하였다.¹¹⁾

음악에 있어서도 라벨(Maurice Ravel, 1875~1937), 드뷔시(Claude Achille Debussy, 1862~1918) 등의 현대 음악가들이 대거 활동하였으며¹²⁾ 한편 탱고 리듬이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아 춤과 함께 유행하였다.

무용에 있어서는 1909년 러시아 무용단의 단장인 디아길레프(Sergei de Diaghilev)가 러시아 발레단을 이끌고 와서 동방과 아프리카의 이국적인 분위기의 발레를 보여주었으며 새로운 타입의 음악과 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의상과 무대장치로 패션에 큰 영향을 주었다.¹³⁾

1910년에 공연된 세헤라자데(Schéhérazadé)와 클레오파트라(Cleopatra) 등은 Leon Bakst에 의해 무대장치와 의상이 디자인 되었는데 무대장치에서 곱색·감청색·초록·노랑·담홍색·진하늘색 등의 사용과 의상에서 금박이나 금속 장식을 군데 군데 끼워넣어 창출하는 눈부실 정도로 선명한 색채 구사는 모든 예술분야 특히 의상계에 충격적 파문을 던졌다.¹⁴⁾

또한 1908년 Paul Poiret가 뿔 이리브(Paul Iribe, 1883~1935)에게 일러스트레이션을 맡겨 출간한 「Les Robes de Paul Poiret」와 1911년 조르쥬 르빠쁘(Georges Lepape, 1887~1971)에게 일러스트레이션을 맡겨 발간한 일러스트레이션집인 「Les Choses de Poiret」는 의상계에 커다란 영향과 충격을 던져 주었다. 즉 이전의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은

시각적으로 흐릿하게 보이며 술기와 단추 등 세부 디테일을 정확히 나타내 주고 사실적으로 묘사한데 반해 이들 두 화가의 일러스트레이션들은 Fauvism의 영향으로 Jean Saude가 개발한 손으로 형판에 가느다란 선으로 윤곽선을 뚜렷하게 그리는 뽀슈와 르기법(Pochoir method)에 의해 그리는 잉크 드로잉된 대담한 선처리, 강렬한 색채 배합과 배경 처리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장르에 있어서 혁명적인 르네상스를 맞이하게 해주었다.¹⁵⁾

Ⅲ. Fauvism의 회화적인 특성 고찰

본 장은 Fauvism 회화양식에 대한 연구로서 첫째로 Fauvism의 탄생, 둘째로 Fauvism 화가의 작품을 고찰함에 있어서 대표작가인 Matisse·Vlaminck·Derain·Dufy 등의 작품 중 Fauvism의 특성을 가장 단적으로 표현한 1905년에서 1908년에 제작된 대표작을 선별해 작품에 표현된 Fauvism의 회화적인 특성을 연구 고찰하고자 한다.

1. Fauvism의 탄생

20세기 초의 미술은 반자연주의를 기초로 한 혁신적인 화파(畫波)와 사조가 혼돈을 거듭하면서 수없이 많이 등장하였으나 그 최초의 막을 연 것은 Fauvism이었다.¹⁶⁾

Fauvism이란 명칭은 1905년 가을 살롱 도톤느(Salon d'Automne)에 출품한 젊은 화가들이 강렬한 색채와 대담한 데포르마시옹¹⁷⁾(deformation) 등의 새로운 양식으로 그린 작품에 대하여 비평가인 루이 북셀르(Louis Vauceeles)가 야수(野獸)들이라 부른 것으로부터 유래된 것이며,¹⁸⁾ 실제로 그 작품들은 야수처럼 울부짖는 듯한 그림들이었

9) Rosemary Lambert, *The 20th Century : Cambridge Introduction to the History of Art*, (London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1), 이석우 역, *20세기 미술사*, (서울 : 열화당 미술선서 58, 1989), p. 13.

10) 谷田 関次 편저, *服飾の美意識*, T.V. 대학강좌, (東京 : 旺文社, 1980), p. 121.

11) Ibid, p. 122.

12) 이성삼, *명곡대사전*, (서울 : 세광출판사, 1982)

13) Marilyn J.Horn, *The Second Skin*, (Boston : Houghton Mifflin Company, 1975), p. 117.

14) 정홍숙, op. cit., p. 37.

15) Juliam Robinson, *The Golden Age of Style*, (London : Orbis Publishing, 1983), pp. 11, 19, 38.

16) 장문호, *서양미술사*, (서울 : 형설출판사, 1980) p. 95.

17) 대상과 형태의 변형.

18) 오광수, *서양근대회화사*, (서울 : 일지사, 1987), p. 39.

다.¹⁹⁾ 또한 이들의 작품은 색채가 눈부시고 난폭하여 충격적인 순색(pure color)에만 의존하고 각 색조간의 직접적인 대비로 해서 더욱 강조되고 있다. 더욱이 대담한 터치와 흔적을 그대로 남겨두어 색채의 표현력이 더욱 생생하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²⁰⁾ 또한 Fauvism 화가들은 회화적 감동이나 열정을 보다 단순하고 생략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작품 세계에 표출시켰다.²¹⁾

Fauvism 화가는 모두 원색적인 색채에 대한 정열을 나누었고 색채가 본래 지니고 있는 색채 자체로서의 표현성을 되찾게 한다는 새로운 기능을 색채에 부여했던 것이다.²²⁾ 풀은 더 이상 녹색에 구애받지 않고 빨강과 파랑은 이들 화가에게는 동등하게 받아들여졌다. 즉 색채를 재현적인 기능에서 완전히 해방시킨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들에게 있어서 색채는 이미 자연의 연속에서 해방되어 자율적인 가치와 독자적인 질서를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²³⁾

2. Fauvism 화가의 작품 고찰

1) 마티스(Henri Matisse, 1880~1954)

Matisse는 Fauvism의 실제적인 리더이면서 Fauvism을 가장 순수한 상태로 완성시킨 화가라 할 수 있으며 극렬한 표현성과 조형성을 완벽하게 통합한 화가였다. 또한 그는 격렬한 표현 대신 평탄한 색면의 장식성을 대담한 데포르마시옹과 색채의 모뉴멘탈(monumental)한 구성 위주를 보임으로써 야수적 체질을 심화 발전시켰다.

Matisse의 관능적이면서 개방적인 색채와 대담한 데포르마시옹을 통한 격정적인 표현은 일종의 원시적 감정과 원초적 생명감에의 동경이었으며 20세기 회화를 순수화로의 의지로 볼 때 또한 Fauvism

이 색채를 통한 감성의 해방이라는 점에서 볼 때, 그야말로 20세기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색채 화가로서의 그 위치를 확보한다고 할 수 있다.²⁴⁾

Fig. 1은 Matisse의 힘찬 교향악적 리듬을 지닌 야심작으로 자연의 세계에서 상상의 추상적인 세계로 기울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여준 추상적이면서도 종합적인 작품이다. 조화로운 평온함을 위한 평면적인 색면과 장식적인 선을 강조한 곡선적인 리듬감은 음악의 조화와 같은 색의 조화를 추구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²⁵⁾ 정열적이고 강렬하면서도 단조로운 색면과 심한 굴곡을 보이는 윤곽선 그리고 단순화 등에서 Fauvism의 정신을 함축하고 있다. 또한 이 작품은 19세기 말의 회화의 여러 경향을 종합적으로 나타내고 있을 뿐 아니라 Fauvism 회화의 한 단계를 넘어선 것 같은 것으로서 Fauvism 회화 전개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다.²⁶⁾ 즉 단순한 색면과 응축의 단순화, 장식적인 선을 강조한 곡선적인 리듬감 등 Fauvism의 특성을 잘 표현해 준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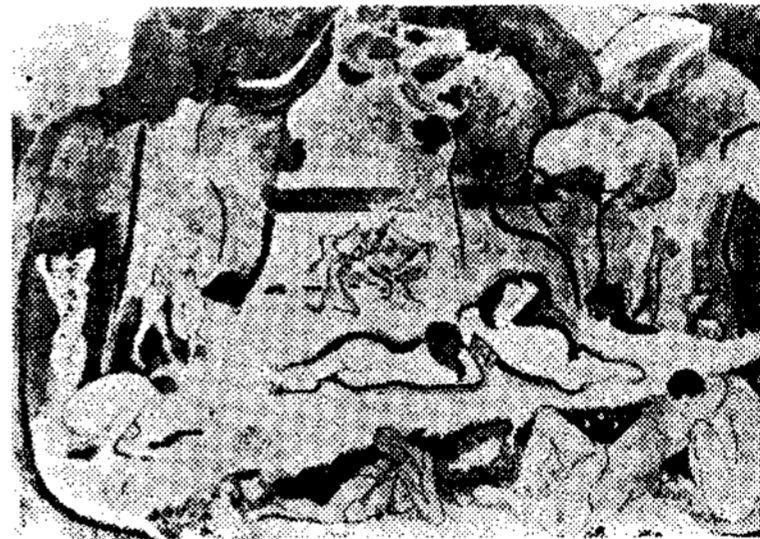


Fig. 1, Matisse, 춤의 기쁨(1905~6)

H.W. Janson : History of Art, p. 612

19) Georg Schmidt Kleine Geschichte der Modernen Malerei, 김윤수 역, 근대회화소사, (서울 : 일지사, 1988), p. 49.

20) 세계예술대백과, 미술, (서울 : 문원출판사, 1975), p. 270.

21) 오광수, *op. cit.*, p. 37.

22) Rosemary Lambert, *op. cit.*, pp. 21~22.

23) 오광수, *op. cit.*, p. 36.

24) *Ibid.*, p. 42.

25) 이화익, 마티스 그림에 나타난 색채의 자율성,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p. 39.

26) Tony Richardson and Nikos Stangos(ed), Concepts of Modern Art, (New York : Harper & Row Publishers, 1974), p. 26.

2) 블라맹크(Maurice de Vlaminck 1876~1958)

Vlaminck는 Fauvism 화가 중에서도 가장 야수적인 정열의 화가로서 그의 격정적인 필치와 색채의 야수성은 하나의 카타르시스라고 말할 수 있다.

사상적으로는 무정부주의와 연결을 갖고 예술적으로는 전통주의를 증오한 그는 어떤 규율도 거부하고 색채의 배치와 구도의 안정에 대한 직감적 감각을 가지고 Gauguin의 장식성과 Cezanne의 구축성을 본능적으로 실천하였다.²⁷⁾ 즉 색채에 있어서의 Vlaminck는 자연의 예속에서 해방되어 자율적인 가치와 독자적인 질서를 가장 야수적인 격렬한 색채 표현으로서 표현주의적인 난폭한 감정 표출의 성격을 띠었다.²⁸⁾



Fig. 2, Vlaminck, 빨간 나무가 있는 풍경(1906)
Grand Collection of World Art, p. 36

Fig. 2는 자신의 내적인 충동을 과감하게 분출시킨 작품으로 Vlaminck의 직관적이면서도 본능적인 정열을 낳은 강렬한 색채와 힘찬 선을 보이고 있다.²⁹⁾ 또한 노랑·빨강·파랑의 원색적인 색채 대비는 격정적이면서도 야수적인 성격을 특징지워 주고

3) 드랭(Andre Derain, 1880~1954)

Derain은 Fauvism에 있어서 Cezanne의 세계와 후기에는 입체주의의 수법으로 끊임없이 자신의 방법을 변화시킨 화면 전개에서 언제나 지성적인

요소를 부여하고 있었다. 색채에 있어서의 Derain은 색에 도취한 듯한 원색적인 색채에 대한 정열로 색채를 재현적인 기능에서 완전히 해방시켰다. 즉 그의 예술은 지성과 격정의 조화로 형성되고 있으며 의욕에 차있는 탐구적인 그의 자세는 다양한 화풍을 보여 주었다.³⁰⁾

파리의 르 페크부근에서 세느강을 그린 Fig. 3는 Derain의 다양성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무와 인물의 힘찬 필치와 강렬한 색채의 표현은 Fauvism의 원색적인 정열을 나타내 주고 있다. 즉 이 작품에서는 단순한 구도와 강렬한 원색의 사용으로 Fauvism의 회화적인 특성을 잘 알 수 있다.



Fig. 3, Derain, 르 페크부근의 세느강(1904)
Grand Collection of World Art, p. 35

4) 뒤피(Raoul Dufy, 1877~1953)

Fauvism을 독특한 방식으로 발전시킨 Dufy는 뛰어나게 세련된 색채 감각과 함께 재빠른 선묘(線描)에도 뛰어났으며 빠른 선묘에 얽혀진 듯한 색채는 어떠한 재현적인 기능을 떠나 그 자체의 순도로서 화면에 생동감을 주고 있다. 즉 경쾌하고 동적인 색이 낳은 새로운 발견과 함께 자기만의 독자적인 회화 세계를 구축하여 색채를 자신의 감수성의 표현으로 승화시켜 색채의 향연과 같은 분위기로 색채의 밝음과 터치 of 경쾌함을 구사하였

27) 양희석, 예술철학(下), (서울: 자유문고, 1988), p. 213.

28) Grand Collection of World Art 근대 현대 I, (서울: 삼성출판사, 1989), p. 106.

29) Grand Collection of World Art 근대 현대 II, op. cit., p. 112.

30) Ibid., p. 111.

다.³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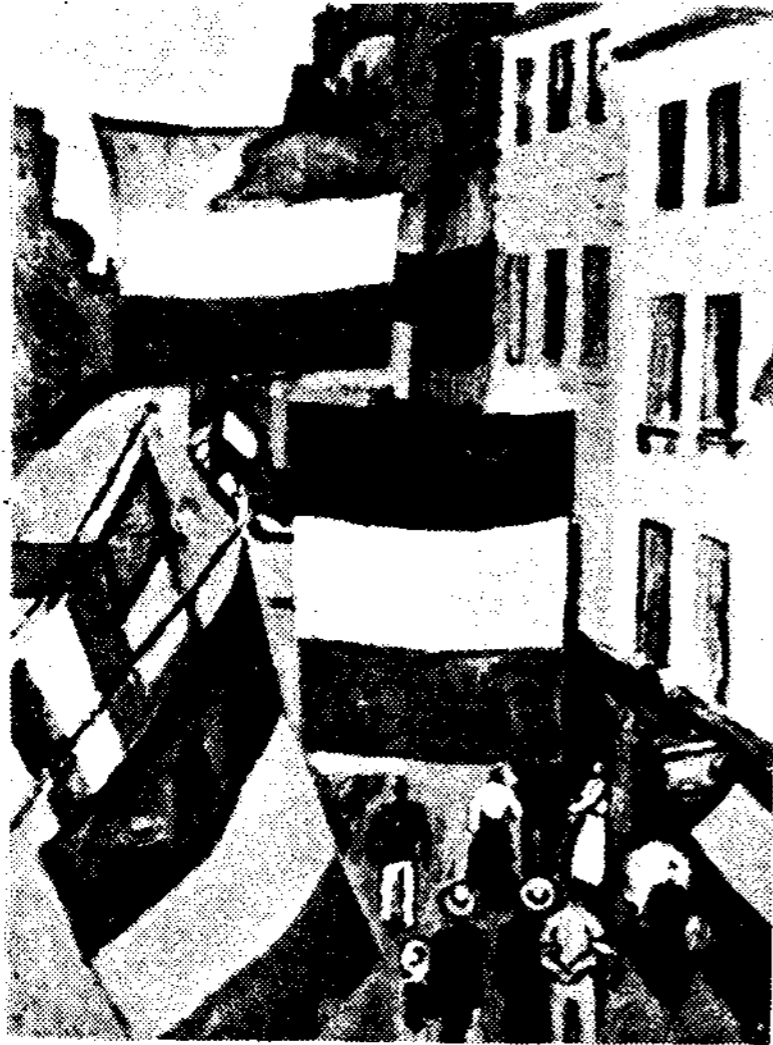


Fig. 4, Dufy, 깃발로 장식된 7월 14일의 르 아브르 거리 (1906)

이승조, Dufy, p. 24

Fig. 4에서 Dufy는 흰벽과 길의 명암을 분명히 하고 원근법을 무시한 채 삼색기를 중심에다 배치하고 그 깃발을 통해 비치며 움직이는 인물과 펼쳐이는 깃발을 동시에 묘사하는 구도의 대담한 시도를 보이고 있다. 색채에 있어서는 강렬한 원색의 대비로 그 대담한 필치와 함께 기하학적인 구도를 나타내고 있다.³²⁾ 즉 구도의 대담한 데포르마시옹과 색채로서 Fauvism의 특성을 표현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IV. Fauvism 영향기의 의상 연구

본 장에서는 Fauvism이 의상의 조형성에 미친 영향에 관하여 그 초점을 두어 Fauvism의 양상과 특성이 단적으로 표현되었으며 극적인 영향을 받았던 시기인 1906년부터 1914년 1차대전 이전까지 나타난 의상의 스타일을 중심으로 하여 각 스타일의 형태(silhouette)·선(line)·색채(color)에 대한

연구와 함께 포괄적인 Fauvism 영향기의 의상에 관하여 연구 고찰하고자 한다.

Fauvism 영향기에 나타난 스타일로는 Empire Tunis Style, Hobble Style, Minaret Style, Harem Pantaloons Style로 나눌 수 있다.

1. Empire Tunic Style

현대 예술의 대표적 미술사학자인 Sedlmayr는 '현대 예술 각각의 장르에 순수성으로의 지향'을 지적했는데 의상 예술에 있어서 순수성으로의 지향은 평면적 고정적 요소의 추방과 장식적 수공예적 요소를 부정하여 움직임에 따라ダイナ믹하게 변화하는 입체적 실루엣의 추구로서³³⁾ 인공적인 실루엣을 추방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꾸뛰리에(couturier)로서 최초의 순수성을 지향한 Paul Poiret는 패션의 야수주의자로서 중세 말기 이후로 계속되어온 여성의 콜셋을 없애으로써 전시대의 과잉장식과 인공적인 실루엣을 버리고 인체의 아름다운 자연미를 그대로 나타내 현대 의상의



Fig. 5, Empire Tunic dress by Poiret(1908)

Academy Editions : POIRT, p. 6

31) 오광수, op. cit., p. 44.

32) 이승조, Dufy, 세계의 미술 40, (서울: 서문당, 1982), p. 24.

33) 谷田 関次, op. cit., p. 124

문을 열었다.³⁴⁾

콜셋의 추방에 따라 제작된 Poiret의 최초 작품은 Empire Tunic dress(Fig. 5)로서³⁵⁾ 하이 웨이스트의 straight long silhouette이었다. 이것은 허리를 조이지 않고 어깨와 하이 웨이스트라인에서 부드러운 드레이프가 스커트 자락까지 곧고 유연하게 흘러내리듯 떨어지는 단순하고도 편안하게 구성된 드레스이다.

Poiret가 Empire Tunic Style을 발표하기 일년 앞서 영국의 의상 디자이너 루실(Lucile, 1862~1935)이 Poiret의 작품과 거의 비슷한 실루엣의 드레스를 디자인했다. 영배우 Lily Elsie를 위하여 만든 이 드레스는 얇은 쉬폰에 레이스와 구슬 등으로 장식된 Empire Tunic Style로 치마의 뒷자락에 튜레인을 단 것처럼 스커트 뒷자락을 더 길고 넓게 퍼지도록 디자인했다.

또한 1909년에 Charles Frederik Worth도 비슷한 실루엣의 Empire Tunic dress를 발표하였고, 1911년에 Mascotte도 3단의 tunic skirt가 달린 Empire Tunic dress를 발표하였다.³⁶⁾

Fig. 6은 Paul Iribe가 1908년에 Poiret의 디자인을 일러스트레이션한 것으로 「Les Robes de Paul Poiret」에 실렸던 작품이다. 하이 웨이스트이며 라인은 한결 유연하게 드레이프진 직선미를 추구하고 있으며 색채면에서는 빨강과 초록의 강렬한 원색의 대비로 표현되어 있다. 이는 Fauvism의 회화적인 특성이 현대 예술이 추구하는 바인 순수성으로의 지향, 화면과 대상의 단순화, 색채의 원색 사용과 대비의 효과인 것과 똑같은 공통점을 읽을 수 있는 것이다. 즉 북식 예술의 순수화로의 지향은 콜셋을 추방하였으며 단순화의 의지는 장식을 피한 선의 경제화로 직선적인 유연한 선을 추구하였으며 색채면에서도 Art Nouveau의 흐릿하고 옅은 파스텔톤에서 과감히 벗어나 야수적인 강한 원색의 사용과 원색끼리의 대비 등 이는 Fauvism 회화양식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Fig. 6, Empire Tunic dress by Poiret(1908)
Academy Editions : POIRET, p. 4

Fig. 7은 Poiret가 1908년도에 발표한 Empire Tunic Style의 애프터눈 드레스로서 바토우 네크라 인이며 기모노 슬리브의 하이 웨이스트로 구성되어 있다. 선은 직선적으로 부드럽게 드레이프졌으며 실루엣과 선의 단순함을 몸통부분과 치맛단에 대담한 꽃무늬 자수로 트리밍하여 아름답고 우아한미를 창출하고 있다. 또한 머리에는 필렛과 같은 형태의 머리밴드를 하고 있다. 색상은 파랑·빨강·노랑 등 원색적인 색채사용으로 야수적인 인상을 강하게 전달하고 있다.

Fig. 8은 George Lepape가 1912년 「Les Modes et Manieres d'Aujourd'hui」에 발표한 일러스트레이션으로 하이 웨이스트의 Empire Tunic Style의 드레스이다. 장식이 없는 심플한 스트레이트 라인과 실루엣 그리고 그것을 더욱 강조해주는 잔디의 초록과 의상의 빨강의 색상 대비, 드레스의 빨간색과 흰색의 대담한 줄무늬로 Fauvism 회화양식의 영향성을 잘 알 수 있다.

34) Bruno Roseele, *La Mode*, (Paris : Imprimerie Nationale, 1980), p. 108.

35) 정홍숙, op. cit., p. 166.

36) Ibid., p. 170.



Fig. 7, Empire Tunic dress by Poiret(1908)
P. Galliera : Paul Poiret et Nicole Groult, p. 75



Fig. 8, Empire Tunic dress by Poiret(1912)
J. Robinson : The Golden Age of Style, p. 45

2. Hobble Style

1910년경 Poiret는 Empire Tunic silhouette에 이어 Hobble silhouette을 발표하여 현대 모우드계에 또 한번의 센세이션을 일으켰다.³⁷⁾(Fig. 9) 즉 육체의 자연미는 상체에서부터 무릎까지 허용하고 발목을 향해 스커트의 폭을 좁혀 극단적인 구속을 표현했다



Fig. 9, Hobble Style by Armand Vallee(1913)
G. Barbier : Parisian Costume Plates, p. 41

콜셋의 추방으로 여성의 자유를 부여했던 Poiret가 또 다시 신체의 일부인 다리를 구속해 버린 것은 극히 모순된 일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신체의 불편함과 구속을 동반한 복식미로서 그의 끝없는 창조력과 개성적인 미의식의 소산이었으며 또한 콜셋 이후 또 다른 구속을 원하고 있는 여성들의 미묘하면서도 다양한 심리를 간파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Hobble Style은 Empire Tunic Style과 함께 제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가장 유행했던 스타일로서

37) James Laver, The Concise History of Costume and Fashion, (New York : Charles Scribner's Sons 1969), p. 224.

그 다양한 디자인의 초점은 자기 독특한 라인의 흐름과 리듬, 독창적인 드레이퍼리를 이루는 울동미에 있다. Empire Tunic Style이 전체적으로 길게 직선적으로 흘러내리는 부드럽고 유연한 정적인 드레이퍼리를 이루고 있다고 한다면 Hobble Style은 역삼각형의 사선으로 흐르는 동적인 드레이퍼리의 리듬감과 울동미를 표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Fig. 10, Hobble Style by Worth(1913)
Lepape et al : French Fashion Plates, p. 11

1913년 Worth의 디자인을 A. Lorenzi가 일러스트레이션한 Fig. 10은 Hobble Style로서 동양적인 배경처리와 깃털 장식, 터번 등 이국적인 향수를 느끼게 한다. 드레스의 노랑색과 검정색의 강한 색채대비는 Fauvism 회화양식의 영향을 그대로 나타내 주고 있으며 하이 웨이스트의 부드럽고 흘러내리는 듯한 유연한 라인과 형태도 현대 의상의 순수성과 단순성을 암시하고 있다.

Fig. 11은 하이 웨이스트 라인까지 목선이 깊게 파인 육감적인 야회복으로 Hobble Style이며 튜레인이 달린 램 코우트(wrap coat)를 걸치고 있다. 스커트의 안쪽으로는 아름다운 페티코우트 자락이 밖으로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디자인하여 길고 날씬

한 복식미를 연출하고 있다. 드레스의 노랑색과 램 코우트와 바닥면, 소품인 방석의 빨강과 파랑은 강렬한 색채대비를 이룸으로써 Fauvism 회화양식이 의상에 미친 영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



Fig. 11, Hobble Style by Vallee(1913)
A. Ishiyama : History of Fashion Plate V, p. 13
Fig. 12, Hobble skirt with train(1914)
J. Robinson : The Golden Age of Style, p. 56

Fig. 12는 George Barbier가 일러스트레이션해 1914년 「Journal des Dames et Les Modes」지에 발표한 것으로 그의 대표적인 이국적인 스타일의 작품이다. 하이 웨이스트로 어깨를 드러낸 대담한 선과 무릎까지 슬릿된 Hobble skirt로 뒷부분의 긴 튜레인과 진주의 화환같은 장식은 움직임의 구속을 나타내주고 있다. 또한 끈으로 엮어진 탱고 슈즈가 슬릿된 스커트의 앞자락에 보이고 있다. 동양적인 배경처리와 색채의 검정과 흰회색조, 초록의 무늬와 빨간색 구두의 강하고 직설적인 표현은 다분히 야수적이다.

3. Minaret Style

Minaret Style은 Hobble skirt위에 램프처럼 둥글게 뻗친 실루엣의 over skirt를 덧입은 스타일(Fig. 13)로서 일명 Lampshade Tunic Style이라고도 하며 1911년 Poiret가 페르시아 축제인 '1002의 夜'(One Thousand and Second Nights)를 개최했을 때 새로운 실루엣으로 발표한 것이다.³⁸⁾

38) J. Robinson, op. cit., p. 44

Minaret Style은 여러 형태를 볼 수 있는데 Harem Pantaloons를 입고 Lampshade skirt를 그 위에 착용한 스타일, 아래가 좁은 Hobble skirt 위에 Lampshade skirt를 입은 스타일, 한 겹 혹은 두세 겹의 풀기 없는 over skirt가 달린 스타일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실루엣을 나타내었다. 또한 Minaret Style은 하이 웨이스트에 넓은 형질 벨트(sash belt)를 매었는데 이것은 일본 취향인 기모노의 요소에서 도입된 것이다.



Fig. 13, Minaret Style by Poiret(1913)
P. Galliera : Paul Poiret et Nicole Groult, p. 17

1912년 George Barbier가 일러스트레이션한 Fig. 14는 Lampshade skirt의 단을 여우털로 트리밍하였으며 스킵크털로 칼라와 소매끝을 장식한 ‘공자’ 스타일의 기모노 코우트를 걸쳤다. 코우트 안쪽의 화려한 꽃무늬는 도안화 되어 Art Deco의 양식을 보여주고 있으며 하이 웨이스트로 Empire Style의 Minaret skirt로 라인은 전체적으로 부드럽고 유연한 스트레이트 실루엣으로의 흐름으로 구성되어 있다. 색채면에서는 드레스와 코우트의 흰색과 검정, 코우트 안쪽의 빨강과 초록의 대담하여 도식화된 무늬가 무채색의 배경 처리와 함께 야수적임을

을 알 수 있다.

Fig. 15는 1913년 Erté가 디자인한 Hobble dress 위에 Lampshade skirt를 덧입은 Minaret Style의 드레스이다. 라인은 직선적으로 곧고 유연하며 색채는 빨강과 노랑의 강렬한 색채 대비를 이루고 있다.



Fig. 14, Minaret dress by Barbier(1912)
M. Contini : Fashion, p. 280
Fig. 15, Minaret Style by Erté(1913)
P. Galliera : Paul Poiret et Nicole Groult, p. 92



Fig. 16, Minaret dress by Striwh(1914)
A. Ishiyama : History of Fashion Plate V, p. 29

Fig. 16은 뒷자락이 길게 늘어진 Hobble skirt 위에 하이 웨이스트의 원피스인 등갓 모양의 Minaret Style의 드레스이다. 색채는 빨강·파랑·초록 등 강렬한 원색의 색채 배합으로 Fauvism 회화양식의 영향을 잘 나타내고 있다.

4. Harem Pantaloon Style

Harem Pantaloon Style은 1911년 '1002 夜' 페르시아 축제에서 Madame Poiret가 입었던 풍성한 주름이 있고 발목에서 타이트하게 꽃 맞는 바지로서 축제 이후로 유행된 스타일이다.³⁹⁾(Fig. 17)



Fig. 17, One Thousand and Second Nighis Festival by Poiret(1911)

정홍숙 : 근대복식문화사, p. 43

Harem Pantaloon은 일명 harem pants 또는 turkish pants라고도 하며 하렘의 여자노비(odalisque)의 의상이다.

Paul Poiret가 Harem Pantaloon Style을 발표하기 2년 앞서 Leon Bakst는 연극 세헤라자데에서 가슴을 다 드러내 놓고 거기에 풍성하게 주름진

커다란 harem pants를 입고 선정적으로 춤추는 오달리스크의 의상디자인을 하였다. 이러한 Leon Bakst의 놀랍고도 파격적인 하렘 디자인은 당시에 널리 팽배해 있던 호화취미와 이국취미를 만족시키며 또한 강하게 자극하였다.

그러나 Poiret는 이 여자노비의 의상에서 영감을 얻어 우아하고 여성스러운 바지 패션을 창조해 모우드화 되면서 대 유행을 하게 되었다.

1911년 Paul Poiret가 디자인하고 George Lepape가 일러스트레이션해 「Les Choses de Paul Poiret」지에 발표한 Fig. 18은 여자 노비의 발목에서 오므려 준 Harem Pantaloon Style의 바지이다.



Fig. 18, Harem Pantaloon dress by Poiret(1911)

Academy Editions : POIRET, p. 15

색상면에서 볼 때 파랑·보라 등의 원색적인 배열과 대비로 Fauvism의 영향으로 현대 의상에 표출된 현대적 감각의 생동감 있는 색채의 향연과 이전의 옅고 바랜 듯한 파스텔의 색에 대한 혁신을 보여주고 있다.

Fig. 19는 테니스를 하고 있는 활동적인 포우즈와 의상이 그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흰색의 Pantaloon과 청록색의 라켓과 리본형의 머플러가 강한 색채 대비를 이루고 있어 Fauvism 회화양식의 영향을 잘 나타내고 있다.

39) 정홍숙, op. cit., p. 173.



Fig. 19, Harem Pantaloon dress by Lepape(1911)
Academy Editions : POIRET, p. 16

V. Fauvism이 의상의 조형성에 미친 영향성 고찰

본 장에서는 20세기 회화가 순수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면서 대두되어 현대 회화의 문을 열고 현대 회화 발전의 기폭제 역할을 하였던 Fauvism 회화양식이 의상에 표출되어진 특성과 그 영향성에 관하여 복식의 조형요소인 형태(silhouette), 선(line), 색채(color)적인 측면에서 연구 고찰하고자 한다.

1. 형태(silhouette)

Fauvism은 현대 예술이 추구하는 바인 순수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면서 회화의 순수성 확립과 개성적인 표현을 추구하고자 그 수단으로서 회화 자체의 자율성과 표현요소를 대상의 재현으로부터 이탈시키고 형태의 단순화로써 보다 직접적인 효과를 노리고자 하였다.

이러한 Fauvism의 순수화로의 의지와 회화 자체의 자율성, 대상과 화면의 단순화로의 추구는 현대 의상에서 평면적·고정적 요소의 추방과 장식적·

수공예적 요소의 부정으로 콜셋을 제거한 실루엣 자체의 순수화로의 의지에 큰 영향을 주었다.

즉 의상 예술도 과거의 콜셋을 추방하고 실루엣을 단순화시켜 복식의 순수성을 추구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콜셋을 제거함으로써 인체에 그대로 나타내어 질 수 있는 의상 그 자체의 자율성을 추구하고있던 것이다.

Fauvism 영향기의 의상 형태는 1906년부터 1914년 1차세계대전 이전까지 Empire Tunic Style, Hobble Style, Minaret Style, Harem Pantaloon Style이 나타났다. Empire Tunic Style은 19세기초 Napoleon I 세 시대의 Empire Style과 유사한 형태로서 콜셋을 제거하여 자연스러우면서 직선적이며 훌쭉하고 유연한 스타일을 말하며 Hobble Style은 길고 훌쭉하면서 아래를 좁혀주어 유선형적 특성을 보이는 스타일이이고, Minaret Style은 Hobble Style에다 Lampshade와 같은 짧은 치마를 덧입은 스타일이며 Harem Pantaloon Style은 길고 풍성하며 유연한 스타일을 말한다.

이와 같이 1906년을 기점으로 하여 이제까지의 풍만한 가슴과 가는 허리 넓은 스커트는 보다 직선적이면서도 유연한 단순한 실루엣으로 바뀌게 되었다. 즉 수세기 동안이나 걸쳐진 터브를 깨어 콜셋을 추방하였으며 동시에 여성의 실루엣을 종래의 S-curve로부터 스트레이트한 그리이스의 키톤과 나폴레옹 I 세 시대의 엠파이어 스타일을 도입하여 여성의 신체에 과감한 행동의 자유를 부여해 의상 그 자체의 자율성과 순수성을 추구하고있던 것이다.

2. 선(line)

Fauvism 영향기의 의상과 Fauvism의 특성 중 선적인 측면에서 의상에 표출되어진 특성과 그 영향성을 고찰해 볼 수 있다.

Fauvism은 화면에서 르네상스 이래의 자연주의적인 수법을 추방하여 즉 원근법·빛과 그림자·입체적 표현을 배제하고 대신 화면에 표현한 것은 색채와 대상의 윤곽 뿐으로 이들의 특성을 선적인 측면에서 보면 화면과 대상의 단순화로의 의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Fauvism의 의지는 현대 의상에서 장식을 피한 심플한 선의 경제화(economy of line)로의 의지로 이어져 즉 직선미가 나는 매끄러운 곡선과 직선을 주로 사용하여 스트레이트

한 유연한 선(sleek line)을 추구하였다.

3. 색채(color)

Fauvism 영향기의 의상에 나타난 색채는 Fauvism 회화양식의 영향으로 강렬하고 화려한 원색의 색채와 대조효과가 큰 원색끼리의 배합으로 뚜렷한 색상대비를 창출하였다.

즉 Fauvism은 색채 자체의 강도에 의하여 표현을 강조하는 한편 가장 순도가 높은 강렬한 원색을 강력한 필촉으로 화면을 메워 이들의 작품에 나타난 색조는 눈부시고 화려하며 충격적인 순색에만 의존함으로써 가일층의 강도에 도달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각 색조간의 직접적인 대비로 해서 더욱 강조되었다. 이러한 Fauvism의 생동감 있는 원색적인 밝은 색채는 패션 디자이너들을 강하게 자극하였으며, 곧이어 패션의 야수주의자인 Poiret를 필두로 하여 Fauvism의 강렬한 색채를 현대 의상에 도입하였다. 즉 인상주의에 의해 창출된 종전의 시들은 듯한 흐릿하고 옅은 파스텔 색조에서 과감히 벗어나 야수적인 강하고 밝은 원색의 사용과 생생한 원색끼리의 대비의 효과로서 의상에 있어서의 색채에 대한 혁신을 일으켰다. 또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도 Fauvism의 영향으로 개발된 뽀슈와르 기법으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장르에 대한 혁명적인 르네상스를 맞이하게 해주었다.

의상에 있어서 색채가 가지는 의미는 아주 큰 것으로 색의 차이에 의해서 비로서 형을 느끼게 된다. 이와 같은 의복의 색채에 대한 중요성을 감안해 볼 때 의상의 조형성에 미친 Fauvism 회화양식의 영향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

VI. 결 론

본 연구는 의상과 예술양식이 불가분의 상호관계를 맺고 있다는 관점에서 회화양식 중 20세기 회화 발전의 기폭제 역할을 하였던 Fauvism이 의상의 조형성에 미친 영향에 관하여 그 초점을 두어 Fauvism의 특성이 현대의상에 어떻게 흡수되었으며 의상이라는 외적인 표현수단을 통하여 어떻게 구현되었는가를 규명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을 두어 현대 의상의 조형성에 나타난 Fauvism의

특성을 형태·선·색채면에서 분석 고찰하였다.

Fauvism은 회화의 '순수성' 확립과 개성적인 표현을 추구하고자 그 수단으로서 회화 자체의 자율성과, 화면과 대상의 단순화와 대담한 데포르마시옹, 색채의 원색사용과 강한 원색끼리의 대비 효과로서 보다 직접적인 효과를 얻으려고 하였다.

위와 같은 Fauvism의 회화적인 특성은 현대 의상의 조형성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사료된다.

먼저 형태면에서 보면 여러 세기 동안 착용했던 콜셋을 추방하고 여성의 실루엣은 스트레이트한 Empire Tunic Style을 도입하였으며 여성의 신체에 과감한 행동의 자유로 부여해 의상 그 자체의 자율성과 순수성을 추구하였다. 또한 Hobble Style, Minaret Style, Harem Pantaloon Style은 Fauvism의 회화적 특성인 대상과 화면의 대담한 데포르마시옹으로써 그 영향성을 이해할 수 있다. 즉 Empire Tunic Style의 평이한 디자인에서 과감한 변형과 변화를 주어 행동의 자유를 다시 한번 구속해 버린 것이 Hobble Style이며 Minaret Style은 Hobble Style에 이은 또 하나의 변형으로 간주된다. 여기에 Harem Pantaloon Style은 다시금 행동의 자유를 부여하고 훌쩍하고 날씬하며 유선형적인 형태를 표출하였다.

선적인 면에서는 의상에 장식을 피한 단순한 선으로써 직선미가 나는 매끄러운 곡선과 직선을 주로 사용하여 straight line과 sleek line으로 표출되었다.

색채면에서는 회화에 나타난 Fauvism의 경향처럼 강렬하고 화려한 원색의 색채와 대조효과가 큰 원색끼리의 배합으로 뚜렷한 색상대비를 창출하였다. 즉 야수적인 강하고 밝은 원색의 사용과 생생한 원색끼리의 대비 효과로서 의상에 있어서의 색채에 대한 혁신을 일으켰다.

위와 같이 의상과 Fauvism은 예술이라는 같은 카테고리에서 볼 때 그 장르는 서로 다르지만 추구 하였던 바가 일맥상통하며 특히 회화양식 중에서 Fauvism은 근대 복식과 결별하고 현대 복식을 맞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폭제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서 회화양식이 의상의 조형성에 미친 영향은 참으로 컸던 것이다.